

kotra 베트남 비즈니스 NEWS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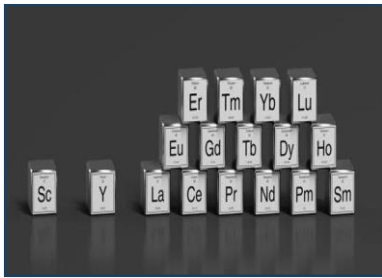
발행일 : 2024년 11월 29일 KOTRA VIETNAM BUSINESS NEWS



- ✓ 베트남 해외시장뉴스·월간 뉴스·프로젝트 동향 2
- ✓ <팀코리아협의회동정> '베트남에 첫 한국형 산업단지 준공'...韓 원팀 성과 17
- ✓ <기업탐방>덴티움 18
- ✓ <법률>베트남 내 외국투자기업의 보고의무.....전현우 변호사 21
- ✓ <회계>베트남 세법 및 세무행정 9탄.....엄진용 회계사 23
- ✓ <통관>베트남 수출을 위한 라벨링 제도 안내.....정영균 관세사 25
- ✓ 금월의 유망 성 투자 정보 <박장성> 27
- ✓ <이달의보고서> 2024 베트남 반려동물 보조제 보고서..... 34
2024미국대선결과에따른경제·통상정책방향전망과시사점
- ✓ 베트남 및 아세안지역 주요 경제 지표 35
- ✓ 사업안내 및 공지사항..... 40



문의처



베트남 희토류 산업, 최신 이슈와 정책 방향

- 글로벌 매장량의 20% 를 점유하나 현재 생산능력은 저조
- 수출금지 조치 계획 발표,
- 부족한 기술력을 메우기 위한 외국인투자유치 확대

베트남의 희토류 매장량 및 최신 생산현황

베트남의 희토류 매장량은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2200만톤)으로 알려져 있다. 베트남내 희토류 광산은 주로 북서부 및 중부 고원지역에 집중돼 있다. 희토류 매장지역은 북부 라이쩌우성의 남세 및 동파오 지역, 라오까이성의 몽훙, 옌바이성의 옌푸지역이 대표적이며 이외에도 북부 꽝닌(Quang Ninh)에서 남부 붕따우(Vung Tau)까지 해안을 따라 흩어져 있는 작은 희토류 매장지가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개발과 생산, 가공기술의 부족으로 베트남의 2023년 희토류 생산량은 600톤에 불과하다. 이는 2022년과 비교해볼 때 오히려 50% 감소한 수치이다. 베트남은 글로벌 전체 희토류 추정 매장량의 20%가량을 점유하고 있으며 전세계 2위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매장량이 180만톤에 불과한 미국의 2023년 생산량이 4만3000톤에 이르고 태국이 매장량을 상회하는 생산력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면, 현재 베트남의 희토류 채굴 및 가공과정에 많은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현지 기업들도 기술적인 한계를 인지하고 있으나, 희토류 가공, 생산 기술에 대한 포괄적인 전략을 수립하거나 연구개발에 자원 및 인력을 투입하는데 있어서는 제한적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베트남 정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희토류 채굴 작업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그 이상의 세부적인 정책 방향,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명확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희토류의 활발한 생산을 유도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정책수립과 실질적인 국제협력 체계를 만드는 것이 선행돼야 하는 상황이다.

베트남 희토류 관련 정부 정책의 최근 이슈

베트남 내외 기업의 베트남 내 희토류의 탐사 및 개발에 관련된 법령으로 투자법, 천연자원법, 계획법, 토지법이 있다. 아울러, 2023년 7월 발표된 결정문 866호 '2050년까지의 비전으로 2021-2030년 기간 동안 광물의 탐사, 추출, 가공 및 사용 계획 승인' 문건을 통해 희토류의 채굴, 개발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목표가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다. 상기의 결정문 866호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2023-2030년 기간 라이쩌우 성을 중심으로 8개의 희토류 채굴 지역을 탐사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탐사 매장량 목표는 90만톤에 이른다. 2031-2050년 기간에는 라이쩌우 성 풍토 지구를 대상으로 1개의 채굴 지역을 탐사할 계획이며, 해당기간 탐사대상 희토류 광물자원의 총량은 150만톤이다.

베트남의 희토류 수출 현황 및 수출규제 계획 발표

베트남은 2023년 기준 8천6000만 달러의 희토류 금속 원료를 전세계로 수출했다. 주요 수출 대상국은 일본-홍콩-대한민국 순으로, 우리나라는 수입 물량의 대부분(23년 기준 84.7%)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나 2023년부터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베트남에서 수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6월 베트남 정부는 국회를

통해 희토류의 해외 수출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베트남 부총리는 그간 베트남의 희토류 개발은 정부의 면밀한 감독 하에 이루어져 왔다면, 천연자원환경부와 관련 부처 및 기관에 희토류 매장량을 평가하고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기초한 원칙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베트남은 중장기적인 희토류의 개발 및 산업발전을 위해 해당 자원을 어느 국가에도 수출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베트남 내에서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베트남 내 관련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베트남 정부가 원하는 것은 단순 원자재의 단순 생산 및 수출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내외 투자유치를 통해 가공기술을 획득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여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는 것이다. 이러한 베트남의 희토류 수출금지 선언으로 인해 베트남의 희토류 물자를 수입하려고 했던 글로벌 기업들의 계획이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수출금지 선언은 비단 베트남 뿐만 아니라 리튬 등 신소재 관련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천연자원 보유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자국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시사점 및 전망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인 Research Nester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희토류 금속 시장의 규모는 약 100억 달러로, 향후 연평균 8% 이상의 성장을 거듭해 2035년까지 총 매출이 2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베트남이 글로벌 희토류 시장의 10%를 차지할 수 있다면 연간 약 2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실질적인 부가가치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생산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부족한 기술 수준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할 지에 대해서는 다소 물음표가 붙는 것이 현실이다. 베트남 정부는 신통상 및 신산업 시대에서 희토류가 가진 전략적 중요성, 특히 미-중국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신중히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풍부한 베트남의 희토류 매장량은 신산업 시대의 상당한 기회요인이나, 부족한 기술력과 신통상질서를 고려해본다면 국제협력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향후 베트남의 희토류 산업은 핵심 광물자원의 확보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최근 베트남 희토류 채굴, 가공 기술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현지 기업과 협력하는 우리 기업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다. 올해 7월 현지 대규모 희토류 탐사 및 가공기업인 Hung Hai Group JSC는 한국의 트라이던트 글로벌 홀딩스(Trident Global Holdings), 미국의 조에틱 글로벌(Trident Global Holdings)와 합작회사를 설립해 베트남 주요 희토류 광산 3곳에 대한 채굴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이외에도 최근 팜민찐 총리 방한시 여러 우수 대기업들이 베트남의 희토류 채굴 및 가공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최근 발표된 베트남 정부의 희토류의 수출금지 계획은 국내외 투자를 끌어들이 산업경쟁력을 우선 확보하겠다는 의미이다. 부족한 국내 자금과 기술력을 생각한다면 결국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필요한 요소를 획득하는 선택이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다. 향후 일본, 한국, 미국, 중국 등 희토류 산업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을 이전 받고 원활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어떠한 체계적인 방안이 마련될지 우리 관련 기업들은 면밀히 동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24년 한-베 소부장 협력 세미나’ 참관기

- KOTRA 베트남비즈니스협력센터, 10월 31일 소부장 협력 세미나 개최
- 베트남, 소부장 산업을 최우선 육성 분야로 주목

2024년 10월 31일, KOTRA 베트남비즈니스협력센터가 주최한 '2024년 한국-베트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협력 세미나'는 약 90명의 참석자가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베트남 정부의 최우선 육성 분야인 소부장 산업의 생태계와 전망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베트남 산업국(Vietnam Industry Agency)/산업무역부(MOIT), 베트남소부장산업협회(Vietnam Association of Supporting Industries), 현대캐피코 베트남법인, ADVANEX Vietnam(아도바넥스, 정밀엔지니어링 솔루션기업)이 연사로 참여했다.

베트남 소부장 산업 육성 로드맵

첫 번째 연설에서는 산업무역부/산업국 응우옌 티 미 린(Nguyen Thi My Linh) 부국장이 '베트남 정부의 소부장 진흥 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지원산업은 완제품 생산을 위해 원자재, 재료, 부품 및 예비 부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지칭하며, 베트남은 2015년 11월 3일 자 시행령 Decree No. 111/2015/ND-CP에 따라 △섬유 및 의류 △가죽 및 신발 △전자 △자동차 제조 및 조립 △기계 제조 △첨단 기술 산업을 지원하는 산업 제품을 권장 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경제 자립 강화, 무역수지 개선, FDI 유치 확대를 목표로 소부장 산업에 큰 관심을 기울이며 다양한 진흥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예컨대 베트남은 금속, 플라스틱·고무, 전기·전자 부품의 개발을 통해 2025년까지 자국 내 수요의 45%, 2030년까지 65%를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등 소부장 생산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베트남 산업국/산업무역부는 시장개발과 세미나를 통해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삼성 베트남과의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해 삼성에 소부장을 납품할 수 있는 기업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예산을 지원해 기업들이 신제품 및 새로운 부자재 개발을 주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응우옌 티 미 린 부국장은 끝으로 "지원 산업 발전에 관한 시행령 Decree No. 111/2015/ND-CP는 2015년에 발행돼 개선할 사항이 많아 내년 1분기까지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첨단 산업 제품 생산과 관련된 정책 초안도 현재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베트남 소부장 산업 현황 및 기회

베트남소부장산업협회 부이 티 홍 하인(Bui Thi Hong Hanh) 부회장은 '베트남 소부장 산업 현황 및 기회'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면서 현재 베트남 내 기업 대부분이 비교적 단순한 부품 생산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2차 및 3차 부품 제조에 주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이 티 홍 하인 부회장은 이와 같은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외국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베트남소부장산업협회는 베트남 기업들이 기술력을 홍보할 수 있도록 B2B 전시회와 무역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기업 간 매칭을 주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더 나아가 협회는 토요타와 협력해 최신 생산 기술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등 네트워킹 구축에도 힘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투자 진출기업의 베트남 소부장 산업 진출 현황 및 현지 파트너 발굴 전략

현대캐피코 베트남법인의 박영광 실장은 한국 투자 진출기업을 대표해 '베트남 소부장 산업 진출 현황과 현지 파트너 발굴 전략'을 주제로 다뤘다. 박영광 실장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과의 경쟁에 대비해 진출기업들이 사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철강, 비철금속, 유리, 플라스틱 등의 소재부터 운송, 정비, 금융서비스, 건설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과 전후방으로 연계돼 있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핵심 산업이다. 따라서 베트남 정부는 완성차 업체와 1차, 2차, 3차 협력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친환경 전기차 핵심 부품의 자립화를 추진하는 등 소부장 기업에 관한 지원과 중소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박영광 실장은 베트남이 향후 국가별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생존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태풍 야기(Yagi)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기후 변화와 전쟁 및 국가 간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붕괴에 대한 연속성을 확보하고 현지화율을 높여 품질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투자 진출기업의 베트남 소부장 산업 진출 현황 및 현지 파트너 발굴 전략

아도바넥스의 농 티 응옥 하(Nong Thi Ngoc Ha) 부장은 '소부장 조달 전략'에 관해 포괄적으로 소개하며 조달의 핵심은 공급업체를 발굴하고 관리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급업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다고 언급했다. 농 티 응옥 하 부장은 기업들이 공급업체를 선정할 때 우선적으로 생산능력과 제품 품질을 평가해야 하며 인증서 및 견적서를 초기 단계에서 확인해 최종 공급업체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급업체 선정 시 지불 조건과 납기 외에도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KPI와 같은 지표를 활용해 공급업체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그 결과를 공급업체와 공유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 티 응옥 하 부장은 기업들이 설문조사와 위험 평가를 통해 잠재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해야 하며, 리스크 분산을 위해 공급업체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제품을 확인하거나 여러 공급업체의 견적서를 비교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물류비용 절감과 시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밀크 런(milk-run)* 시스템과 재활용을 고려해 볼 것을 덧붙였다.

* 밀크 런: 여러 공급처에서 소량의 제품을 한 번에 수거해 단일 경로로 묶어 운송하는 방식

시사점

소부장 산업은 제조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군에 필요한 소재, 부품 및 장비를 공급해 생산성을 높여 베트남의 최우선 육성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베트남은 지원산업 및 첨단 산업 제품 생산과 관련된 법률을 개정·제정하는 등 지원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외국 기업과의 협력 관계 강화에도 더욱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흐름에 맞춰 B2B 전시회와 무역 행사에 적극 참여해 현지 파트너 발굴에 힘쓰고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붕괴에 대비하며 공급업체 선정 시 잠재적 리스크를 분석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 의료기기 시장동향

- 한국은 2023년 베트남의 의료기기(HSC 901890) 수입점유율 1위
- 베트남 의료기기 시장의 최다 수익 분야는 주사기, 소독용품등을 포함한 기타 의료기기 분야

시장동향

베트남의 의료기기 시장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는 베트남의 경제 성장으로 인한 중산층의 증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수요 증가 덕분이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건강 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예방적 진료와 조기 진단을 위한 의료기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베트남 의료기기 시장은 약 90%가 수입돼 유통되고 있는 만큼 베트남 정부의 의료 산업 관련 정책적 지원과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 또한 시장 확장에 기여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탯이스타(Statista)에 따르면, 베트남의 의료기기 시장 수익은 2019년 11억5553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2023년에는 14억7328만 달러를 기록했다. 의료기기 시장 수익은 꾸준히 증가해 2027년에는 20억 달러가 넘는 수익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베트남 의료기기 시장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기록한 분야는 주사기, 소독용품등을 포함한 기타 의료기기 분야며, 다음으로 많은 수익을 기록한 분야는 심전도 기기 및 인공 심장 박동기를 포함하는 심장학 기기 분야인 것으로 분석된다.

유통구조

베트남으로 의료기기를 수출해 유통하기 위해서는 관련 시행령(Decree 07/2023/ND-CP)에 따라, 수출 품목의 등급 분류 후 베트남 보건부에 사전 신고 및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모든 의료기기는 기능 등급(작동 장비, 무균 기기, 마취 장비 등)이 아닌, 위험 등급(A, B, C, D)에 따라 분류되며 등급에 따라 등록절차가 다르다. ▲저위험군인 A등급은 적용 표준 신고(Declaration of applicable standard) 대상이며 ▲B, C, D등급은 중, 고위험군으로 자유 판매 등록(Registration of free-sales) 대상이다. 신고 및 등록 완료 후 도매 상인이나 의료장비 무역회사를 통해 유통이 가능하다.

시사점

베트남의 경제 성장, 중산층 증가, 인구 고령화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건강 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예방적 진료와 조기 진단을 위한 의료기기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 정부의 패스트트랙 제도 시행, 의료기기 우대관세 제공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도 시장 확장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의료기기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2023년 베트남의 의료기기 수입에서 19.8%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고, 이는 베트남과 한국의 경제적 협력이 강화되고 있고 한국 제품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의 의료기기 관리에 대한 규제와 절차가 복잡한 편이기에 베트남에 의료기기 수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들은 관련 시행령과 법률 문서들을 살펴보고 적절한 현지 유통 파트너사나 에이전시와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시장 진입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활기찬 베트남: 피트니스 산업의 성장과 미래전망

- 베트남 피트니스 시장, 매년 8.16% 성장할 것으로 예상
- 베트남에서 가장 많은 피트니스 체인점을 가진 브랜드는?

시장동향

시장조사기관 Statista에 따르면, 2023년 베트남의 건강 및 피트니스 시장 규모는 382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2028년까지 연평균 8.16%의 성장률을 보이며 635만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건강 및 피트니스 시장은 비교적 소득 수준이 높고 건강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은 하노이와 호치민 두 대도시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2023년 3월 기준, 베트남 호치민의 피트니스 체인점 수는 55개며, 하노이에는 42개인 것으로 조사된다. 호치민과 하노이를 제외한 기타 지역에는 13개의 피트니스 체인점이 존재한다. 또한, 웨어러블 기기와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며 이를 활용한 디지털 피트니스와 웰빙 시장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애플워치나 삼성워치 등을 활용해 심박수와 운동 시간 등을 트래킹할 수 있는 피트니스 트래커의 비율이 높으며, 직접 피트니스 센터에 가지 않고 운동 방법과 식단을 짜주는 건강 및 웰빙 코칭과 관련된 어플리케이션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디지털 피트니스 및 웰빙 시장은 2023년 2억4316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2028년에는 4억 170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주요 피트니스 시장 브랜드

캘리포니아 피트니스 및 요가 브랜드는 베트남 전역에 37개 이상의 체인점을 가진 베트남 최대 규모의 브랜드며, 지난 10년간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캘리포니아 피트니스에 등록했다. 캘리포니아 피트니스는 37개의 체인점 수와 웰빙, 신체적, 정신적 건강 향상을 강조하는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커브스는 베트남 전역에 27개의 체인점이 있으며, 여성 전용 체육관이다. 2023년 베트남 통계총국인구조사에 따르면, 베트남은 현재 남성(49.9%)보다 여성(50.1%)의 인구 비중이 더 높다. 이에, 커브스는 여성만을 오로지 타겟팅하고 있으며, 운동에 집중하기 좋은 환경과 무료 개인 트레이너와의 30분 운동 시간을 강조한다. 또한, 여성 회원들의 다이어트 성공 후기들을 통해 효과적인 체중 감량을 강조하는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시사점

베트남의 피트니스 산업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베트남 정부 또한 체육 및 스포츠 관련 국가 예산 지출을 매년 증액하고 있기에 더 많은 기업의 피트니스 시장 진출이 예상된다. 그러나, 베트남 피트니스 업계 관계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피트니스 센터를 설립하려면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고 언급했다. 또한, 모든 장비를 수입해야 하며 트레이너 고용과 홍보 및 고객 유치 이벤트 등과 같은 추가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기에 충분한 자본 없이는 도전하기 힘든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미 여러 체인 브랜드가 존재하기에 베트남 피트니스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충분한 시장조사와 자본 및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024년 베트남 식음료 F&B 산업 현황은?

- 2022년부터 2027년까지 베트남 식음료 서비스 산업 연평균 성장률 12.75% 이상
- 베트남 식음료 매장 영업시 준수해야 하는 규정은?

시장동향

베트남의 식음료 산업은 체인점, 카페와 바, 레스토랑, 노점상 등을 포함한 각종 식당과 카페들을 포함한다. Euromonitor는 2022년부터 2027년까지 베트남의 식음료 서비스 산업 매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연평균 12.8%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베트남 레스토랑 관리 솔루션 제공업체인 iPOS.vn이 2024년 상반기 동안 베트남 식음료 F&B 시장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의 전국 F&B 매장 수가 지난해 대비 3.9%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긍정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다. 해당 보고서는 약 1000개의 레스토랑 및 카페, 2300명 이상의 식당 종사자, 1300명 이상의 F&B 산업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나온 데이터를 참고로 한다.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베트남은 30만4700개의 F&B 매장을 기록했으나, 이는 지난해 대비 3.9% 감소한 수치며, 전국적으로 최소 3만여개의 매장이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된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2024년 상반기 동안의 베트남 F&B 산업의 매출액이 2023년 전체 매출의 약 68% 이상을 기록했다. 이는 소비자물가지수(CPI) 및 인플레이션의 증가와 더불어, 최근 F&B 매장들의 다양한 프로모션을 출시함으로써 고객의 구매 수요가 증가해 거래 건수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식음료 산업 브랜드

베트남 시장조사업체 디시전랩(Decision Lab)은 2024년 식음료 시장 순위를 발표했으며, 단순히 매출액으로 순위를 매긴 것이 아닌 브랜드 평판, 가치, 품질, 고객 만족도 및 추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된 순위다. 조사 결과, 2024년 베트남 식음료 시장의 선두 주자로는 KFC가 선정됐으며, 뒤이어 하이랜드 커피, 쯡 응웬 레전드 커피, 폭룡 커피 & 티, 롯데리아가 순위를 차지했다.

시사점

Euromonitor에 따르면, 베트남의 식음료 산업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12.8%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식음료 체인점으로는 케이에프씨(KFC), 하이랜드 커피(Highland Coffee), 쯡 응웬 레전드(Trung Nguyen Legend) 등이 있다. 베트남은 미식의 나라인 만큼 다양한 식문화가 있고 한국에 비해 주요 소비자들의 나이가 어려 유행에 민감하고 호기심이 많아 브랜드 충성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베트남의 경제 구조에서 해외 수출, 외국 기업 투자, 외국인 관광객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에 수출, 투자, 관광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경제 위기나 정책 변동 발생 시 베트남 소비자들 또한 소비를 줄이거나 대체품을 찾는 등 소비 성향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베트남 식음료 시장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은 베트남의 식음료 및 마케팅 트렌드를 면밀히 분석하고 식문화에 대해서도 충분한 조사를 진행한 후 진출을 고려하는 것이 추천된다.



'하노이 식품&음료 박람회'로 알아보는 베트남 F&B 시장

- 한류가 불러온 K-food 열풍, 베트남에서 꾸준한 인기
- 유망 시장 속 치열한 경쟁... 잠재 제품군 발굴이 핵심
- 시장 진출 시, 신중한 가격 전략 수립 및 철저한 시장조사 필수

하노이 국제 전시 센터에서 11월 6일부터 9일까지 '하노이 식품 & 음료 박람회'가 개최됐다. △식품 △음료 △가공 △포장 △기술 및 장비 등 식품 산업의 전 분야를 아우르는 전시회로 총 8개국에서 300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했다.

참가기업 인터뷰: 한국 기업 미스티(MEASTY)

미스티는 헬로키티, 짱구 등 인기 캐릭터 라이선스를 활용한 토이캔디를 주력 제품으로 판매하며, 바이어 발굴을 통해 수출 기회를 모색하고자 금번 전시회에 참가했다. 미스티 관계자는 베트남이 다른 동남아 국가들보다 캐릭터 산업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으나 문화 교류를 통해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베트남 F&B 시장에 진출할 경우 한국보다 시장 단가가 상당히 낮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며 베트남에서 제품을 판매할 시 단가가 지나치게 높으면 경쟁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판매가를 철저히 분석해 가격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전시회 주최 측 베트남 담당자

주최 측 담당자는 베트남 F&B 시장에서 한국 제품이 △우수한 품질 △합리적인 가격 △효과적인 패키징 덕분에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타 국가 대비 베트남 바이어들의 선호도가 높다고 전했다. 특히 주최 측 담당자는 베트남 바이어들이 상품의 품질, 가격, 디자인 순으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를 충족하기 위해 각 요소에 각별한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바이어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려면 제품의 품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샘플을 준비하고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하며 베트남 소비자와 바이어의 취향에 맞춘 디자인을 선보이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사점

베트남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중산층 인구 증가로 인해 현지 소비자들의 생활 수준과 구매력이 향상되면서 다양한 식음료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다. 특히 베트남 F&B 시장은 건강과 환경을 중시하는 새로운 소비자 트렌드에 맞춰 빠르게 변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과 저당·저칼로리 식품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 소비자들은 K-pop과 한국 드라마 등 한류 문화에 영향을 받아 한국 식음료 제품에 대한 높은 선호를 보여 우리 기업에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베트남 F&B 시장 내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은 신제품군과 신규 시장 발굴에 더욱 집중하고 현지의 비교적 낮은 소득 수준을 고려해 신중히 가격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현지 전시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새로운 수출 기회를 모색하며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해 베트남 소비자와 바이어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4년 베트남 반도체 전시회 (SEMICON VIETNAM) 참관기

- 최신 기술과 반도체 산업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베트남 반도체 전시회
- 호치민 SECC에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진행

증가하는 베트남 반도체 산업 규모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 협회의 동남아시아 지역 회장인 린다 탄(Linda Tan)은 글로벌 기업들이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공급망 다변화와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인해 풍부한 인력이 확보되는 아시아 지역으로 눈을 돌리며 베트남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떠오르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베트남의 반도체 산업은 2022년과 2023년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수요와 수익이 감소했으나, 2024년부터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2029년에는 313억9000만 달러의 수익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4년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11.%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참가기업 인터뷰: 일본기업 A사

반도체 공장 자동화 기계와 설비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일본 기업인 A사는 2012년 베트남에 진출했으며 동남아를 비롯한 독일과 미국에도 진출한 유명 기업이다. A사는 베트남의 풍부한 인적자원과 발전 가능성을 보고 진출을 결심했으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어떤 제품에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지 파악하고 더 많은 거래처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참가기업 인터뷰: 베트남기업 B사

베트남 기업인 B사는 반도체 자동화 기계와 같은 정밀 기계 부품과 각종 산업 장비들을 판매하는 회사이다. B사는 2007년에 설립됐으며 동나이, 하노이, 호치민에 3개의 지점을 두고 있다. B사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최신 장비 트렌드를 살피고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싶다고 밝혔다. 최근 B사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베트남 반도체 관련 산업에 뛰어들며 가격과 품질 모두 경쟁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시사점

베트남의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 다변화와 지정학적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으로 눈을 돌리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비록 2022년과 2023년에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수요와 수익이 감소했지만, 2024년부터는 안정적인 성장세가 기대된다. 이번 베트남 반도체 전시회(SEMICON VIETNAM 2024)는 이러한 성장세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약 96개 사가 참여해 최신 기술과 기계를 선보였다. 이러한 매개체를 통해 베트남의 반도체 산업이 국내외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한다면,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4년 호치민 한국상품 판촉전 개최기

- 지난 10월 11일부터 20일까지 에스텔라 플레이스 쇼핑몰 1층에서 개최
- 유망 소비재 판촉전과 함께 한국댄스 공연과 같은 다양한 행사도 진행

베트남 호치민 에스텔라 플레이스 쇼핑몰 1층에서 10월 11일부터 20일까지 뷰티, 식품, 리빙, 패션 등 다양한 한국 기업들의 유망 소비재를 선보이는 호치민 한국상품 판촉전이 개최되었다. 이번 판촉전에는 23개의 부스가 참여하였으며, 행사가 진행되는 10일간 약 7만40000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쌀, 과일, 홍삼, 김, 화장품과 같은 다양한 품목의 인기 소비재들이 등장해 현지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한국과 베트남의 증가하는 교역

2024년 1~9월 누계 기준, 베트남은 한국의 3위 수출국, 7위 수입국, 3위 무역흑자국이다. 또한,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 규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20년 481억7800만 달러였던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 금액은 2023년 609억6400만 달러로 증가했다. 이러한 한국과 베트남의 교역 증가는 양국 간의 경제적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참가기업 인터뷰: 한국기업 A사

한국의 화장품 회사인 A사는 현재 베트남 바이어와 계약을 맺고 베트남에 화장품을 수출하고 있다. 그러나 추후 베트남에 매장을 낼 계획이 있기에 이번 판촉전에 참여하여 베트남 소비자들을 직접 만나보고 선호도와 소비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참가했다고 밝혔다. A사는 베트남 진출의 주된 이유 중 하나로, 베트남의 한류 열풍으로 인한 한국 화장품 등의 소비재 수요 증가를 언급했다.

바이어 인터뷰: B사

바이어 B사는 한국의 식품과 건강 기능식품 등을 베트남에 유통하고 있다. B사는 현지 대형 유통망(이마트, 빅씨, 소피 등)에 물건을 납품하고 있으며 이번 판촉전을 통해 새로운 수입 물품들의 소비자 반응을 테스트하고 재고 부담을 줄이고 싶다고 대답했다. B사는 한국 소비재 유통에 종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국의 소비재들이 중국과 베트남의 소비재들과 비교하여 가격은 높지만 성능과 품질이 우수하여 꾸준히 찾는 베트남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시사점

이번 2024년 호치민 한국상품 판촉전은 한국과 베트남 간의 경제적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한국의 유망 소비재를 현지 소비자가 직접 체험해보고 공연 등을 통해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도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베트남 소비자들의 관심을 얻고 이들의 기호도 또한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하여 한국 소비재의 품질과 성능이 베트남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된다면 추후 더 많은 시장 확대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타이어 산업의 미래는?

- 늘어나는 운송수단에 따른 타이어의 수요 증가
- 일상적 교통수단인 오토바이 뿐만 아니라 개인 자동차 수요도 확대 중

시장동향

베트남의 타이어는 주로 자동차용, 오토바이용, 트럭 및 버스 타이어용으로 나뉜다. 오토바이는 베트남의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서 꾸준히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으며, 중산층이 확대됨에 따라 개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도시화 진행에 따른 버스와 트럭들도 증가하며 타이어 수요가 함께 증가하고 있다. 베트남 자동차 제조업체 협회(VAMA)는 2024년 1~9월 운송수단이 19만3854대 판매됐으며 2023년 1~9월에는 19만130대가 판매됐다고 밝혔다. 2024년 1~9월 운송수단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2% 증가했으며 이러한 운송수단 판매량 증가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베트남의 타이어 수출입 시장 규모는 2019년 159만4000달러에 불과했으나 꾸준히 증가해 2023년에는 290만8000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타이어 산업 브랜드

베트남의 주요 타이어 산업에는 여러 글로벌 기업 및 국내 기업들이 경쟁하고 있다. 브리지스톤과 금호타이어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들은 베트남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현지 생산 공장을 설립하거나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이들은 브랜드 신뢰도와 고품질 제품, 기술력으로 베트남 타이어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국내 자동차 관련 산업을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기에 베트남 국내 타이어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베트남 국내 브랜드들은 가격 경쟁력과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시사점

호치민시 고무 플라스틱 생산자 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타이어 제품 주문은 2024년 초 대비 10~15% 증가했다. 실제로, 호치민 타이어 업계 관계자 A 씨는 KOTRA 호치민 무역관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타이어 주문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A 씨는 이러한 수요 증가의 원인으로,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타이어의 원자재 확보가 충분히 이루어짐에 따라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 강화돼 많은 기업이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타이어를 선택하게된 점을 꼽았다. 베트남의 타이어 산업은 경제 성장과 중산층 확대에 따른 차량 수요 증가, 그리고 글로벌 기업의 현지 진출로 인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오토바이 및 승용차 타이어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베트남 국내 제조업체들은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다. 외국 브랜드들도 베트남을 생산 기지로 삼아 기술력과 품질을 강화하고 있어, 베트남 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타이어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촉진하며, 향후 관련 업계 시장의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2024 K-뷰티 엑스포 베트남으로 본 화장품 트렌드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베트남 뷰티 산업
- 베트남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구매한 뷰티 품목은?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2024년 사이공 뷰티쇼'는 'K-뷰티 엑스포 베트남 2024'와 함께 개최됐으며 지난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총 3일간 진행됐다. 현장에는 각종 최신 화장품들과 헤어 제품, 네일 제품, 화장 기구 등이 진열됐으며, 일회용 선크림, 고체 브러쉬 클리너, 젤네일 스티커 등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신제품들도 대거 전시됐다.

한국 업체 A사

A사는 한국 올리브영에 이미 많은 제품이 입점해 있는 중견 기업이다. A사의 주력 제품은 브러쉬, 퍼프 클렌저와 퍼프고 2015년 설립됐다. A사는 원래 해외 브랜드 화장품을 한국에 팔던 회사였으나 2022년 자체 상품을 개발해 유통하기 시작했다. A사는 현재 7개국에 자체 상품을 유통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다. A사는 베트남 진출 어려움에 대해서는 언어 장벽과 신뢰할 수 있는 유통 파트너가 없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A사는 자신들의 장점에 대해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들과 협업해 만든 제품들이기에 품질 대비 저렴한 가격과 분기마다 2~3개의 제품을 출시하며 다양한 시도를 하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A사는 기대와는 달리 베트남 고객들이 브러쉬와 퍼프 같은 뷰티 도구에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대답했다.

한국 업체 B사

B사는 2021년 설립된 기업이며 제품들 가운데 한 제품만 올리브영 입점에 성공했다. B사의 주력 제품은 선크림이며, 선크림과 프라이머의 장점을 합친 선크림 프라이머와 소포장 된 일회용 선크림을 인기 상품으로 소개했다. B사는 제품 특성상 베트남과 같은 햇볕이 강한 나라에서 선크림류의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베트남에 진출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B사는 베트남 진출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특정 품목을 베트남 바이어를 통해 온라인 시장에 유통했으나 독점 계약이 아니라 판매 채널과 가격 통제가 어려웠다고 언급했다. 또한, 영어로 소통하지 못하는 바이어들이 많아 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B사는 이번 뷰티쇼 시작 전부터 9건의 상담이 예약돼 있다고 밝혔으며, 베트남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과 수요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및 진출전략

베트남의 뷰티 및 관리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2027년에는 45억6500만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성장 동력으로는 스킨케어와 색조 화장 부문이 유력하며 이는 베트남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바르고 발색이 되는 제품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은 베트남 뷰티 산업이 소셜 미디어와 뷰티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큰 시장이기에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베트남 진출 시 언어 장벽과 유통 파트너 부재와 같은 어려움이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만큼 적절한 현지 인력 채용, 통역 서비스 등을 활용해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현지 기업과의 협업, 공동 마케팅 및 프로모션 등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베트남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여 적절한 유통사를 찾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베트남 알루미늄 시장동향

- 베트남, 보크사이트 매장량 전세계 2위
- 자원은 풍부하나 알루미늄 제련 기술 등은 미흡

베트남의 알루미늄 광석 매장량

알루미늄 광석으로 알려진 보크사이트는 알루미늄 생산의 주원료로 사용되며 베트남은 보크사이트 매장량이 풍부한 국가로 꼽힌다. 미국지질조사국(U.S. Geological Survey)의 2024년 광물 상품 요약 보고서(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24)에 따르면, 베트남의 보크사이트 매장량은 58억 건식 미터 톤으로 전 세계 매장량의 19.3%에 해당하며, 이는 기니에 이어 세계 2위에 달하는 수치이다.

알루미늄 생산

막대한 매장량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베트남의 알루미나와 보크사이트 생산량은 전 세계 생산량의 0.9~1%에 불과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알루미나와 보크사이트 생산량은 다소 변동을 보였는데, 알루미나 생산량은 기술 개선과 자동화 수준 향상으로 소폭 증가한 반면, 보크사이트 생산량은 대지 정리 문제로 인해 수개월에 걸쳐 공장 가동이 며칠씩 중단되면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의 공장은 알루미나를 생산할 수 있으나 아직 알루미늄 제련 능력은 갖추지 못한 상태다. 알루미나는 럽동 보크사이트 알루미늄 콤플렉스와 년꺼(Nhan Co) - 닥농 알루미나 공장에서 생산되며, 이 두 공장의 알루미나 생산 과정은 광석 드레싱(dressing) 단계와 알루미나 생산 단계의 두 가지 주요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기 언급된 콤플렉스와 공장은 모두 베트남 국영 석탄회사인 비나코민(Vinacomin)이 투자하고 있으며, EPC(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계약자는 중국 알루미늄 국제 엔지니어링 찰리에코(Chalieco)이다. 보크사이트 채굴 및 알루미나 생산 과정에서의 유해 폐기물,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비산재 및 슬래그,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여러 환경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베트남 정부는 이 두 프로젝트의 운영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시사점 및 진출전략

베트남 정부는 결정문 Decision No. 866/QĐ-TTg에 따라 광산과 직접 연계된 심층 가공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기업에 한해 보크사이트 채굴을 허가하고 있다. 한편, 닥농과 럽동 알루미늄 광산은 개발 시작 단계에서부터 환경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정기적으로 공장을 점검하고 있어 투자를 고려하는 기업이라면 환경 관리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알루미늄은 △건설 △자동차 △전자 △포장 산업 등 베트남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 필수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한국이 베트남의 최대 누적 투자국인 만큼 우리 기업들은 알루미늄 시장 동향을 꾸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 세계 2위의 알루미늄 매장량을 보유한 베트남이 알루미늄 밸류체인의 점진적 성장과 제련 기술 향상을 이룬다면, 한국의 알루미늄 수입선 다변화에 있어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베트남-브라질, 양국 관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베트남 팜 민 찌(Pham Minh Chinh)총리, 브라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통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것에 합의함. 첨단 기술, 디지털 혁신, 에너지 전환, 바이오 연료, 환경 보호, 기후 변화 대응 등의 분야에서 협력강화예정.

[Vietnamnews 11.8]

▶ 베트남, 신규 전자비자 등록포털 개설

베트남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전자비자 등록 포털 공식 개설함. 이 포털은 구글에서 '전자비자(thithucdientu)'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전반적인 인터페이스가 개선되어 사용 편의성이 높아짐. 기존 포털과 함께 운영되며, 현재 평균 1만 5,000건의 전자비자 발급 민원을 처리하고 있음. 지난해 8월부터 비자 정책을 개선하여 전자비자 체류 기간을 30~90일로 늘리고 무비자 체류 기간을 최장 45일로 설정했음. 그러나 비자 발급 지연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자, 이민국은 공식 포털을 이용할 것을 권장함. 올해 10월까지 베트남을 방문한 외국인 수는 1,410만 명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했으며, 관광당국은 1,800만 명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음.

[Vnexpress 11.09]

▶ 베트남, 10월 소매판매 증가세 8.5% 기록

올해 베트남의 소매판매 증가세가 소폭 둔화되었으며, 10월의 상품 소매·서비스 매출은 545조 7,000억동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함. 그러나 10월까지 누적 매출은 5,246조 2,000억동으로 전년 대비 8.5% 증가했지만, 이전 증가율인 9.8%를 하회함. 특히 물가 요인을 제외한 증가율은 4.6%로 전년동기 대비 크게 감소함. 상품 소매 매출은 음식 및 식료품이 10.7% 증가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지역별로는 팜닌성이 9.6%로 가장 높았음. 숙박 및 케이터링 서비스 매출은 칸화성이 17.1% 증가했고, 기타 서비스는 빈단성이 20%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올해 1~10월 동안 베트남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1,41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3% 증가.

[Vnexpress 11.10]

▶ 베트남, 수입 육류 소비 증가세...10월까지 14억달러 14% ↑

올해 1~10월 베트남의 육류 및 부산물 수입액이 약 1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함. 주요 수입국은 인도, 미국, 러시아, 독일 등이며, 수입산 육류는 국산보다 훨씬 저렴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음. 수입 돈육의 가격은 kg 당 5만 2,000~6만동(2.1~2.4달러)으로, 국산 돈육의 절반 이하로 판매되고 있음. 이러한 수입 증가로 인해 현 지축산업계는 우려를 표명하며,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음. 동나이성축산협회는 저렴한 수입육이 관리되지 않으면 국내 축산업자들의 회복 노력이 무산될 수 있다고 경고. 농업농촌개발부는 수입 축산물의 품질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소비자 건강과 가축 질환 확산 방지를 위한 강력한 검역을 요구함.

[Insidevina 11.14]

▶ 하노이시, 내년 아파트 신규 공급 3만호 전망...저가부문 '전무'

내년 베트남 하노이시의 아파트 신규 공급이 3만 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저가 아파트는 단 한 채도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부동산서비스업체 원하우징(OneHousing)의 보고서에 따르면, 신규 공급의 64%가 고급 아파트로, 나머지는 최고급 아파트로 채워질 예정이다. 내년 평균 분양가는 7,200만 동(약 2,832달러)으로 2022년 초와 비교해 75%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사들은 중산층의 수요 증가에 따라 고급 및 최고급 아파트 개발을 우선시하고 있다. 최근 2년간 하노이의 저가 및 중급 아파트 공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시장은 재정적으로 안정된 소수의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Insidevina 11.16]

▶ '부가세 10%→8% 인하'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 추진

베트남 재무부는 부가세 2%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할 것을 국회에 제안 통신, 부동산 등 11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 및 서비스 업종에 대해 8%의 부가세율 유지 예정 베트남 정부는 22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계 및 기업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부가세 인하 조치를 3년째 시행중임. 연장에 따른 내년 상반기 감세 규모는 약 25조 동(9억 8418만 달러), 지난 3년간 총 누적감세액은 123조 8000억동(48억달러 상당)으로 예상

[Vneconomy 11.19]

▶ 베트남 당 서기장, 말레이시아와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를 위한 정상회담 추진

베트남 권력서열 1위인 또 럼 당서기장은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의 초청으로 21일부터 23일까지 말레이시아를 공식 방문 예정이다.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는 1973년 수교 이후 2015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됨. 당서기장은 지난달 말레이시아 하원의장과의 회담에서 양국 간의 경제 및 투자 협력을 촉진하고 베트남 내 말레이시아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 강조함. 양국은 정기적인 고위급 회담을 통해 정치적 신뢰를 강화하고 경제·무역·투자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

[Tuoi tre 11.19]

▶ 日 이온그룹, 베트남 하롱시 복합쇼핑몰 내달 착공...사업비 2억달러

일본 유통대기업 이온그룹이 하롱시에 복합쇼핑몰을 착공할 예정. 이 쇼핑몰은 바이짜 이관광지구 내 9만 1,000㎡ 부지에 5층 규모로 건설되며, 총사업비는 약 2억 200만 달러에 달함. 이온그룹은 최근 룡안성과 켄터시에서도 복합쇼핑몰 투자 계획을 승인 받아 현지 영업망을 확장하고 있음. 현재 이온그룹은 베트남 중부 지역에서도 신규 쇼핑몰 건설을 추진중. 2024년 현재 이온그룹은 하노이와 호치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7곳의 복합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누적 투자액은 15억 달러에 이룸. 2024 회계연도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사업부 매출은 전년 대비 14.5% 증가한 약 5,310만 달러를 기록함.

[Tuoi tre 11.25]

1. 발굴 프로젝트 리스트

Sac Ly – Kon Tum Wind Power Plant

* 발주처 담당자 정보 및 기타 세부사항 별도 문의

2. 프로젝트 세부정보

발주처	기업명 : An Phat Technology Trading JSC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위치 : Kon Tum Province, Vietnam ▪ 프로젝트 진행상황: Preparing for F/S report ▪ 프로젝트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n Tum province is known for having great wind power potential, with an average wind speed of 6.5~7 m/s, focused on several districts , including Kon Plong, Kon Ray, Dak Glei and Sa Thay Districts. ➢ The project is in line with the provincial and national power development plan. The project doesn't overlap with any other plans of Sa Thay, Ngoc Hoi Dist., of KonTum province. ▪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project spreads out to the following communes: Dak Kan (Ngoc Hoi Dist.), Po Ko and Tan canh (Dak To Dist., Ho Moong, Sa Nhon and Ro Koi (Sa Thay Dist.). ➢ The project area is close by the major traffic routes, only 7-8 km from the National highway 14E. ➢ The total land use area of the project: 130 ha ➢ Capacity: 200 MW, divided into 2 phases ➢ + Phase 1: 104 MW ➢ + Phase 2: 96 MW ➢ Number of turbines: 50 turbines (~4MW) ➢ Turbine height: 140 m



베트남에 첫 한국형 산업단지 준공...韓 원팀 성과

흥연성 클린 산업단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등 한국 연합체(컨소시엄, 75%), 베트남 TDH 에코랜드(25%)가 공동 투자 설립한 첫 한국형 산업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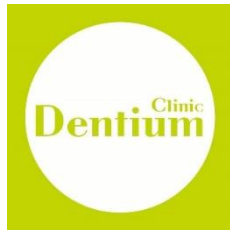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까지 박상우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수주지원단을 베트남에 파견해 '흥연성 클린 산업단지 (클린산단)' 조성 기념행사 참석, '박닌성 동남신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기업 예비협약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에는 박 장관의 축사와 공로자 시상상을 포함한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 행사에는 베트남 고위급 인사들(흥연성 성장, 기획투자부차관)과 LH·KIND 등이 참석했다. 24일은 박 장관이 하노이 메트로 건설현장(현대건설)과 스타레이크 개발현장 등을 찾아 우리 기업의 애로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 등을 논의했다. 장관은 "한국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원팀 코리아'로 힘을 합쳐 성공적으로 조성한 클린 산업단지를 매우 뜻깊게 보고있다"며 "이번 성과에서 얻은 노하우를 발판 삼아 '동남신도시' 사업도 수주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K-신도시 수출을 확대해 우리 건설시장을 부양하고 해외 경제영토를 넓혀 나갈 계획"이라 부연했다.

출처: <https://www.eb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3930>, 코트라 편집

베트남 팀코리아협의체 활동 내역은 앞으로도 지면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으로 전파가 필요하신 기관은 코트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다낭시에 최첨단 시스템을 심다. (Dentium One-Day Dental Clinic)



원장 박 현식

- 1989 연세 대학교 치과 대학 졸업
- 1996 독일 Aachen 치대 보철과 수련 및 박사 학위
- 1999 서울 삼성 병원 치과 진료부 보철과 전임의
- 2006 미국 미시간 대학 치과 보철과 객원 교수
- 현재 하임 치과 (HEIM Dental Clinic) 대표 원장 (대한민국, 서울 특별시 소재)
- 덴티움 치과 (Dentium Digital Dental Clinic) 원장 (베트남, 다낭시 소재)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보철과 외래 교수
- 오스트리아 DPU 치과 대학 객원 교수
- 각종 임플란트 회사 개발 자문 및 교육 지도

1. ㈜ Dentium 회사 소개

㈜ 덴티움은 2002년 한국에서 두번째로 치과용 임플란트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치과용 임플란트 뿐 아니라 CT 등 다양한 의료 장비와 골이식재 등 의료 관련 재료들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세계적인 토탈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전세계 18개의 세일즈 독립 법인과 3개의 생산 법인 및 3개의 밀링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24년 현재 베트남 다낭시에 투자한 한국 기업의 278개 프로젝트 중 두 개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으며 아이템 부분에서 전체 0.7%를 차지하고 있으나 투자 금액 부분에서는 한국 기업 전체 투자액인 381,000,000 usd 중에 80,000,00USD의 투자를 하고 있어 전체의 21 %를 차지하고 있어 베트남 다낭시에서 가장 투자금이 많은 제일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ICT VINA (Danang High Tech Park, Vietnam)





2. 덴티움 인터내셔널 덴탈 클리닉

덴티움 클리닉은 (주)덴티움이 현재 베트남에 가지고 있는 3개 법인 (제조 법인, 영업 법인, 의료 법인) 중 의료 법인으로 인가 받아 운영하고 있는 치과 법인이다. 임상경력 30년 이상 한국인 원장의 진료와 15년 경력의 현지인 원장 및 한국인 치위생가 상주하여 치료를 하고 있으며 한국 치과와 한국 기공사와 연계된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완벽한 최첨단 치과 진료를 진행하고 있다. 공식적인 베트남 보건부 발급 치과의사 허가증 및 다낭시 치과 치료 허가증을 보유한 안정적인고 양질의 진료를 하는 베트남 최고의 치과라고 자부할 수 있다.

3. Cosmetic과 Digital을 앞세운 미래적 치과

세계 최초의 장비와 기술을 바탕으로 현재 다양한 미래적 치과 치료를 진행하고 있으며 디지털 작업을 통한 원데이 클리닉을 실현하고 있다. 과거 일주일 이상 걸리던 치과 보철 작업을 구강내 스캔(Intra-oral scan)과 AI 컴퓨터 디자인을 거쳐 첨단 밀링 장비(milling machine)를 이용하여 가장 심미적이고 안정적인 세라믹 보철을 한시간 안에 제작 완성하므로써 환자의 여러 번 내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시간적, 경제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대한민국의 임플란트 기술에 3차원 CT를 활용하여 환자의 악골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제작한 navigation guide를 이용한 수술을 하므로써 수술이 빨라지고 정확해 지고 쉬어지고 위험 부담이 줄어들어 환자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또한 덴티움의 자회사인 제노스 등 국내 회사들에 의해 개발된 PDRN과 보톡스, 필러 등을 이용한 cosmetic 진료도 병행하고 있으며 최고 품질의 한국산 피부 관리 장비와 화장품 등 다양한 아이টে를 갖추고 피부 노화 방지 및 피부 미백 치료 등 치아 뿐 아니라 전반적인 안면 안티에이징(Face Anti-aging) 치료를 진행할 계획이다.



<향후계획>

(사)한국 의료 관광 진흥 협회와 협업한 의료 재단

한국 문화 체육부 산하 (사)한국 관광 의료 진흥 협회와 협업하여 한국의 의료 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함께 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프리미엄 헬스케어 플랫폼을 통해 의료진과 해외 고객을 연결하고 한국의 선진화된 의료 시스템을 기반으로 종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사)한국 관광 의료 진흥 협회는 한국의 선진 의료를 세계 시장에 알려 한국 의료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서울 강남, 서초권에 위치한 최고의 의료 기관들의 외국인 고객 유치에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뛰어난 한국의 의료 기술을 전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베트남 다낭시에 처음 지부를 설치하여 활발히 활동을 개시할 계획이다. 현재 프랑스, 몽골, 베트남, 호주, 미국 등 다양한 국가의 인플루언서들이 수술 과정과 후기를 모두 포함하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각자의 계정에 업로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메디콘은 인플루언서들의 높은 신뢰도를 통해 한국 의료 기술을 전세계에 알리고 국익을 위한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교육프로젝트

의료 서비스의 혁신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하여 다양한 인재들을 육성하고 발굴하기 위한 실전형 프로젝트, 세미나, 전문가 초청 심포지움, 멘토링 등 특화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IT 강국인 한국의 첨단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한 빠르고 안정적인 진료 시스템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아직 의료적으로 낙후된 베트남 현지 의사들의 진료 품질 향상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덴티움 치과는 2025년 1월 다낭시 용다리 마리나 바로 앞으로 이전하여 K-dental 과 K-beauty의 새로운 장을 열고 활발한 진료 활동과 교육 활동을 통해 베트남 의료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참고

New Adress : 461 Đ. Trần Hưng Đạo, An Hải Trung, Sơn Trà, Đà Nẵng, Viet Nam

Tel (office) : 0236 3822 257

Zalo (office) : 0917 591 500

베트남 내 외국투자기업의 보고의무

법무법인JP 베트남사무소 전현우 대표변호사

들어가며

한국에서 해외투자신고를 통해 베트남에 투자를 하시는 경우 외국환 은행을 통해 해외투자 신고를 정기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와 더불어 베트남 투자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에서는 외국투자자들의 투자행위 및 프로젝트 이행과 관련하여 각종 관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바, 최근 투자국에서는 외국투자자들의 이러한 보고의무 준수에 대해 매우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특히 이러한 보고의무를 진행하지 아니한 경우 M&A, 증자, 업종추가 등 인허가 변경에 여러가지 장애가 되고, 보고의무 해태에 대한 행정과태료 및 미이행된 보고의무를 다시 이행하도록 하고 있어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 각별히 주의를 요합니다. 보고의무가 복잡하지는 아니하나 상당히 양이 많고, 미이행된 부분에 대한 행정 제재결정이 많이 늦어져 필요한 인허가 일정에 큰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보고의무를 그동안 잘 이행해 오셨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외투기업의 보고의무 유형

▶ 정기 투자 활동 보고

투자법 제42조3항 및 투자법 제72조 1항에 따라 분기/ 연간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FORM A.III 1 및 FORM A.III 2 양식에 따른 보고를 진행해야 하며 베트남 국가 투자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양식은 대부분 재무적인 사항 - 투자내역 및 대출금, 이익, 비용, 세금 등에 관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기보고서의 경우 해당 분기 다음월 10일 전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연간보고서의 경우 보고년도 다음해 3월 31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 정기 투자모니터링 및 평가 보고서

투자법 시행령 29/2021/ND-CP 제 96조 2항에 따른 보고서이며 반기 및 연간 보고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보고서 양식은 FORM 13 및 17에 따라 보고를 해야 하며 프로젝트 이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투자 위치, 규모, 토지사용면적, 프로젝트 건축상황, 이행상황, 투자자본금, 정관자본금을 비롯하여 자본금, 금융기관 대출을 비롯한 각종 재무정보를 작성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제출기관은 공단의 경우 공단관리위원회, 일반 기업의 경우 계획투자국입니다. 반기보고서의 경우 7월 10일 전에, 연간보고서의 경우 다음해 2월 10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투자 모니터링 평가 보고서

투자법 시행령 29/2021/ND-CP 제100조8항 및 제100조11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수정 전 제출해야 합니다. FORM 양식 15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제출 기관은 공단내 프로젝트의 경우 공단관리위원회, 그 외 일반 프로젝트의 경우 계획투자국입니다. 작성 내용은 재무에 관한 사항, 토지 근로, 건설진행상황, 기타 대여금 현황 등이 포함됩니다.

➤ 회계감사보고서

시행령 17/2012/ND-CP 제15조1항에 따라 외국투자기업은 반드시 외부감사 대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시행규칙 200/2014/TT-BTC 제109조2항은 회계기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기관은 공단관리위원회 및 계획투자국입니다.

마치며

최근 외국투자기업의 투자보고의무를 매우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으며, 특히 투자등록증 등 인허가 변경시에 보고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미이행된 경우 진행하던 인허가 업무가 중단되고 보고서 제출을 요청하게 되는데, 하나하나의 보고서는 부담스럽지 않으나 여러분기, 여러해 그리고 여러 보고서들이 누락된 경우 이를 다시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많이 소요하고 있어 미리 이부분을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트남 세법 및 세무행정 9탄

동아회계법인 임진용 회계사

들어가는말

안녕하십니까? 동아회계법인 베트남 대표 엄 진용 회계사입니다. 이제 2024년이 한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김없이 1년의 총결산을 하는 시기가 도래하였는데요, 작년 못지않게 많은 법인들이 올 한해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던 것으로 압니다. 부디 2024년 결산마감을 잘 마무리하시고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달에 이어 부가세와 관련하여 부가세 공제 및 환급절차 관련 사항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가세 공제 및 환급 등_계속

부가세의 환급시 늘 세무서에서 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기세무조사로의 전환입니다. 즉, 부가세 환급은 국가에서 납세자인 각 법인에 '세금'을 환급해주는 것인데, 이것이 싫기 때문에 반대로 추징이 가능한 '세무조사'를 진행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법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정기세무조사로의 전환 가능성 때문에 오랜기간 부가세 환급자체를 주저하거나 미루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목격을 하게 됩니다. 정기세무조사를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조사개시 30일 이전에 반드시 문서로 조사의 개요 및 목적과 범위 등을 기술하여 법인에 전달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상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조사개시 일주일 전에 전화로 연락이 오는 경우와 같은 황당한 사례들도 많습니다. 제가 베트남 생활을 십수년간 해오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한가지는 바로 부가세 환급시 몇 %의 사례금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는지 또는 세무서에서 몇 %를 요구하는데 이게 적절한 수준인지 여부 등과 같은 내용을 문의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부가세의 환급은 각 법인들 입장에서 내가 국가로부터 정당하게 돌려 받아야할 것을 돌려받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감사하게도 돌려받는게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즉, 몇 %의 사례금이라는 것 자체가 년센스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동환급시스템이 갖춰져 있지않았던 것을 감사하게도 돌려 받는게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즉, 몇 %의 사례금이라는 것 자체가 년센스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동환급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국가에서는 별도의 환급신청 행위자체도 불필요한 것인데, 베트남에서는 유독 환급받는 것을 마치 무슨 엄청난 시혜를 받는 것처럼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으며 유독 한국투자기업들에서 자주 목격되고 회자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판단하는 첫 번째 이유는 급한 성격입니다. 부가세 환급은 환급결정이 나면 규정에서 정한 일정 기일안에 환급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연말연초 등 특정 시점에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기일을 넘기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한국투자기업들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환급받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일정 요율 또는 일정 수준의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빨리 환급받고자 하는 나름의 근거로서 은행의 1년간 정기예금 이자를 끄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부분이 참 어폐가 있는 것이,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와 비교가 되려면 부가세 환급금을 동일한 정기예금 기간 동안 은행에 묶어놔야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부가세 환급을 빨리 받으면 그 돈은 법인의 운영비 지출, 본사 차입금 상환, 매입자금 변제 등 1~2개월 이내에 대부분 사용이 된다는 것 때문에 조바심이 나게 되고 세무서에 서는 이 점을 충분히 활용을 합니다.

상기 설명에서 ‘연말연초 등 특정시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요. 각 법인들마다 특히 자금소요가 많은 시점이 연말연초이며 하필 이 시기에 베트남에서는 환급을 위한 예산이 대부분 소진되는 시기와 맞물립니다. 아울러, 부가세의 환급은 각 지역별 세무서의 통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State Budget이라고 하는 예산을 담당하는 부처가 따로 있는데요. 연말연초에 세무서에 조기에 환급을 해달라는 목적으로 수시로 돈을 지급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목격합니다만, 아무리 세무서에 거액의 사례금을 지급한다고 해도 State Budget에 예산이 없으면 환급이 불가능하겠지요? 엉뚱한데 돈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사례를 만들어내는데 큰 일조를 하는 집단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회계법인이나 컨설팅사와 같은 서비스업체들입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한국투자법인들이 부가세 환급을 이런 서비스업체들에게 의존하고 있는데요. 환급신청 및 절차를 직접 진행해도 괜찮고 만약 직접 진행하기가 여의치 않으면 서비스업체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문제는 이런 서비스업체들이 각 지방 세무서 등과 공고히 결탁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법인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베트남 정부기관과 사이가 돈독하고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는 서비스업체가 일도 빠르게 잘 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즉각 나서서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한편으로 그런 기대가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에 반드시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이 대가가 생각보다 많고 크다는 점이겠지요. 아울러, 현금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다보니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도 하고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법인들 입장에서는 직접 환급신청이 가능한 여건을 만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구요. 만약, 서비스업체를 활용하게 되면 정확하게 업무의 범위와 수수료를 확인하시고 진행해야 불필요한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겠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지난호에 이어서 부가세 관련 사항 중 부가세 환급 관련하여 보다 내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해인 2025년부터는 소득세에 관한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트남 수출을 위한 라벨링 제도 안내

FTA활용지원센터 정영균 관세사

베트남에서 물품을 수입 및 판매하기 위해서는 43/2017/ND-CP(상품라벨에 관한 시행령) 및 111/2021/ND-CP(상품라벨에 관한 시행령 일부 수정안), 05/2019/TT-BKHCHN (상품 라벨링 시행령 이행에 관한 세부시행규칙)에 따른 적절한 라벨링 부착이 필수적이기에 라벨링 규정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상품라벨에 관한 시행령 제 1, 2조에서는 라벨링 적용 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따라 부동산, 환적, 경매물품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한 베트남에서 생산 및 거래, 수입되는 모든 품목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개정 시행령 1조 5항 및 시행령 제 10조에서는 수입되는 물품에 부착해야 할 라벨링의 내용과 베트남 국내에서 유통되는 물품에 부착되어야 하는 내용 및 형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수입 이후 베트남 국내에서 유통하기 전 2차 라벨의 부착이 필요합니다.

1.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상품의 제품 라벨에는 다음 내용을 베트남어로 표시해야 합니다.

- a) 상품명
- b) 상품에 책임이 있는 조직 또는 개인의 이름과 주소;
- c) 상품의 원산지.
- d) 부록 I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명시된 각 상품 유형의 특성에 따른 필수 내용

2.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상품의 원본 라벨에는 통관 절차를 진행할 때 외국어 또는 베트남어로 다음 내용을 표시해야 합니다.

- a) 상품명
- b) 상품의 원산지.
- c) 생산 조직이나 개인, 해외 상품에 책임이 있는 조직이나 개인의 이름 또는 약칭.
- c1) 상품의 원래 라벨에 제조 조직이나 개인, 해외 상품에 책임이 있는 조직이나 개인의 전체 이름과 주소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품에 첨부된 문서에 이러한 내용이 충분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 c2) 본 조 2항 a, b, c항에 규정된 외국어 원본 라벨이 부착된 베트남으로 수입된 상품의 경우, 통관 절차를 수행하고 보관 창고로 운송한 후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어로 기재된 상품 라벨을 추가해야 합니다.

참고 상품 라벨링 개정 시행령 1조 5항 및 시행령 제 10조

이러한 상품 라벨의 위치와 표기 방법에 관해서는 시행령 제4조 및 시행규칙 제 4조에 따라 라벨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품라벨에 관한 시행령(43/2017/ND-CP)

제4조. 제품 라벨의 위치

1. 상품 라벨은 상품의 세부 사항을 분해하지 않고도 라벨의 규정된 내용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상품 및 상업적 포장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2. 외부 포장을 열 수 없거나 열 수 없는 경우 외부 포장에는 라벨이 있어야 하며 라벨에는 필수 내용이 완전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상품 라벨링 시행령 이행에 관한 세부시행규칙(05/2019/TT-BKHCHN)

제4조. 상품 라벨의 위치

1. 라벨의 필수 정보는 완전히 표시될 필요는 없으며 상품의 다른 부분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정보는 상품의 어떤 부분을 분해하지 않고도 육안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필수 정보는 상품 라벨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2. 1차포장 및 외부포장이 모두 포함된 물품
 - a) 시장에서 판매 시 1차포장 단위로 판매하지 않는 물품의 경우 외부포장에 라벨링
 - b) 외부포장상태, 1차포장단위 소규모 물품의 포장의 경우 1차포장 및 외부포장 전부 라벨링 필요
3. 제품 내부의 표시내용을 볼 수 있도록 외부포장이 투명한 경우에는 외부포장에 라벨링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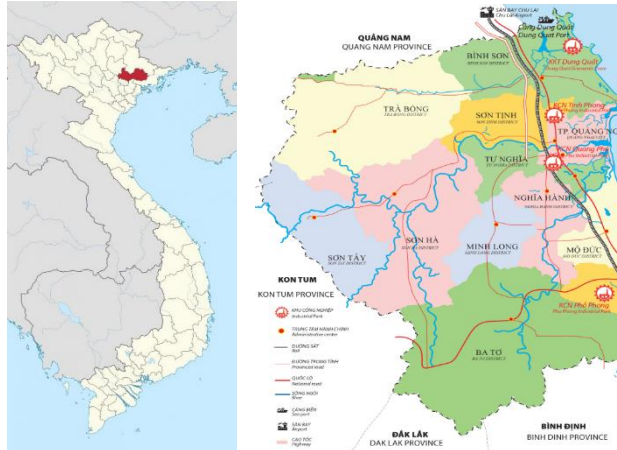
이외에도 상품 라벨링 시행령 이행에 관한 세부시행규칙에는 상품라벨에 기재되어야 하는 성분명의 표시방법, 주소 기재방법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및 세부시행규칙에 적합하지 않은 라벨이 부착된 경우 통관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세관에서는 라벨링 관련 보수작업을 허용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으로 상품을 수출하시기 전에 적합한 라벨이 부착된 상태로 물품을 수출하는지 항상 사전 확인을 하여 수출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트남 북부 유망 투자지-박장성

기본정보

구분	내용
면적-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적: 3,895.5km² / 인구: 약 2백만 명 도시거주 비율: 23.7%
지정학적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장성은 베트남 동북부에 있는 성이며, 하노이 수도권 계획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박장성은 랑선 - 하노이 - 호치민시 - 목바이 경제 회랑(난닝 - 싱가포르 아시아 횡단 회랑에 속함)에 위치해 있음. 박장성은 북쪽으로는 랑선(Lang Son)성, 동남쪽으로는 광닌(Quang Ninh)성, 남쪽으로는 박닌(Bac Ninh)성 및 하이즈엉(Hai Duong)성, 서쪽으로는 타이응웬(Thai Nguyen)성 및 하노이시와 인접해 있음. "개발 경제 삼각지대"인 하노이-하이퐁-광닌에 인접하여 국내외 지역과의 경제 발전과 문화 교류에 매우 유리함. 박장성은 하노이 수도에서 60km(차로 약 1시간 소요), 후응이(Huu Nghi) 국제 국경 관문(랑선성)에서 110km(차로 약 1시간 30분 소요), 하이퐁 항구에서 150km(차로 약 2시간 소요), 노이바이(Noi Bai) 국제공항에서 50km(차로 약 50분 소요)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하노이 - 박장(Bac Giang) - 랑선(Lang Son) 고속도로, 4번 & 5번 하노이시 외곽 순환 도로, 5개의 국도(1A, 17번, 31번, 37번, 279번) 수로: 가우(Cau) 강, 트엉(Thuong) 강, 룡남(Luc Nam) 강 / 철도: 껌(Kep)역, 박장역
GRDP 성장률 / 1인당 GDP('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대비 GDP 성장률: 13.45% / 성 1인당 GDP: US 3,950달러/년
경제규모 / 산업별 성장률('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수출액: US 274억 달러 / 총 수입액: US 248억 달러 산업별 성장률: 공업/건설업(17.3%), 서비스업(5.73%), 농수산업(3.68%)
산업구조('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업/건설업 65.7%, 서비스업 21.3%, 농수산업 13%
노무여건('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연령 인구 비율: 53% 노동연령 인구 중 직업교육 이수자 비율: 76% 직업교육 이수자 중 자격증 보유 비율: 33%
최저임금('2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장시, 빗옌(Viet Yen)군, 옌중(Yen Dung)현: VND4,410,000 = US176.4 달러(2급지) 히엵호아(Hiep Hoa)현, 탄옌(Tan Yen)현, 랑장(Lang Giang)현: VND3,860,000 = US154.4 달러(3급지) 타 지역: VND3,450,000 = US138 달러(4급지) * 계약상 최저 임금에 관한 제 74/2024/ND-CP 의결서(2024년 7월 1일) 따름 / 1USD=25,000VND
외국인투자 ('23.12월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장성의 총 외국인투자는 559개 프로젝트에 걸쳐 총 111억 달러 이상 (한국) 박장성의 총 한국투자는 360개 프로젝트에 걸쳐 총 26억 달러, 한국은 성에 투자한 30개의 국가 중 투자액 기준으로 3위, 투자건수 기준으로 1위 규모임

투자환경



박장성의 위치 및 지도

▶ 교통시스템

(도로)

- 하노이 – 박장(Bac Giang) – 랑선(Lang Son) 고속도로
- 4번과 5번 하노이시 외곽 순환 도로
- 1A 국도: 랑선(Lang Son)성, 박장성, 박닌(Bac Ninh)성, 하노이시를 포함한 31개의 성 시를 관통함
- 17번 국도: 박장성과 박닌성의 괴버(Que Vo) 산업단지를 연결함
- 31번 국도: 박장성과 랑선(Lang Son)성을 연결함
- 37번 국도: 박장성과 타이응웬(Thai Nguyen)성을 연결함
- 279번 국도: 박장성과 랑선(Lang Son)성, 꽝닌(Quang Ninh)성을 연결함

(수로)

- 가우(Cau) 강, 트엉(Thuong) 강, 룡남(Luc Nam) 강은 물류와 결합된 6개의 내륙 항구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철도)

- 국제 기차역인 (Kep)역이 있으며, (Kep)역을 관통하는 4개의 철도 노선이 있음:
 - ✓ 켓- 동당(Dong Dang)(랑선성) – 방뜨엉(Bang Tuong)(중국)
 - ✓ 켓- 류사(Luu Xa)(타이응웬성)
 - ✓ 켓 – 하롱(Ha Long)(까이란 항구)
 - ✓ 켓 - 옌비엔(Yen Vien)(하노이시)
- 또는 박장역은 하노이-랑선 철도의 지점이며, 후응이(Huu Nghi) 국경 관문을 통해 중국과 연결됨.

▶ 관광 및 문화

- 박장성은 매우 독특한 유형 및 무형 문화유산 체계를 갖춘 풍부한 문화를 보유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성에는 국립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된 유적지가 103개 있으며, 국립 특별 등급 유적지군이 3개 있음. 이는 생태리조트와 결합된 언덕과 과수원을 체험하는 관광 등 관광개발에 유리한 조건임.
- 박장성은 매년 많은 전통 축제가 열리며, 특히 봄철 설날이나 다양한 축제 기간, 친목을 다지는 자리에서 음악 공연이 자주 열림. 허(Quan Ho) 민요 및 의식음악인 까주(Ca Tru) 노래하기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빈응이엠(Vinh Nghiem) 파고다는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세계기록유산으로 인정되었음.
- 현재 박장성의 골프 및 리조트 관광이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운영 중인 골프장 2개(AberHill Yen Dung 골프장, Stone Highland Viet Yen 골프장), 건설 중인 골프장 1개(Luc Nam 골프장)가 있음. 또는 다른 10개 골프장을 투자 유치하고 투자 준비하고 있음



허(Quan Ho) 민요



까주(Ca Tru) 노래하기



빈응이엠(Vinh Nghiem) 파고다



동카오(Dong Cao) 고원



오선(Bao Son) 파인애플 힐



깜선(Cam Son) 호수

▶ 천연자원

(수로)

- 박장성에는 쾨우강(Cau River), 룡남강(Luc Nam River), 트엉강(Thuong River) 등 3개의 큰 강이 있으며 총 길이는 347km임.
- ✓ 쾨우강: 길이 290km, 박장성을 관통하는 구간의 길이는 110km임. 쯔강(Cong River)과 가로강(Ca Lo River)이라는 두 개의 주요 지류가 있음. 현재 쾨우강의 관개 시스템은 많은 현에 관개용수를 공급하고 있음.
- ✓ 룡남강: 길이 약 175km, 박장성을 관통하는 구간의 길이는 약 150km이며, 주요 지류는 감단(Cam Dan) 강, 타잉루언(Thanh Luan) 강, 란(Ran) 강 및 버(Bo) 강임. 현재 룡남강 수계는 현들에 관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주로 호수와 댐 등 약 170개 프로젝트가 건설되었음.
- ✓ 트엉강: 길이 87km, 주요 지류는 화(Hoa) 강, 서이(Soi) 강, 충(Trung) 강임. 트엉강에는 현들에 관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쾨우선(Cau Son) 관개 시스템이 건설되었음.
- 또는 박장성은 크고 작은 저수지 273개를 포함하여 총면적이 거의 5,000헥타르에 달하는 많은 호수가 있음. 이 호수들은 산간 지역 사람들의 생산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물 조절 장치이자 저수지임.

(광물)

- 박장성에는 다음을 포함한 15가지 유형의 광물이 있음:
- ✓ 금속광물: 철광석, 구리 광석, 납, 아연, 금, 수은이 있음
- ✓ 산업용 광물: 중정석, 고령토, 이탄, 장석 등이 있음
- ✓ 건축 자재용 광물: 점토, 벽돌, 타일, 모래, 자갈, 건축용 석재, 세라믹 점토, 내화점토 등가 성 전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

(산림)

- 총 산림면적은 160,223헥타르이며, 그 중 천연림은 55,092헥타르, 인공림은 92,797헥타르임. 200종 이상의 식물과 많은 희귀한 동물이 보존되어 있음. 그 중, 47종의 식물, 51종의 희귀 동물, 6종의 고유종, 베트남 레드북(Vietnam Red Book)과 IUCN 레드리스트(Red List)에 따르면 멸종 위기에 처한 47종은 우선 보호가 필요함.

▶ 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경제 개발 방향

(산업단지 개발계획 현황)

- 집중적인 산업 개발을 위해 배치된 지역은 편리한 교통 연결, 적절한 인프라 및 서비스(전기, 물, 폐기물/폐수 수집 및 처리, 근로자를 위한 서비스 등)의 좋은 조건을 충족하도록 보장함. 동시에 토지의 효과적인 활용과 이용을 보장하며, 산업단지는 도시서비스지역의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계획됨. 2030년까지 박장성은 약 7,000헥타르 면적의 29개 산업단지(12개의 산업-도시-서비스 단지 포함), 약 3,006헥타르 면적의 63개 산업 클러스터를 계획할 예정임.

(향후 산업단지 개발 방향)

- 2021~2030년 박장성의 산업 발전 주장은 다음과 같은 목표가 포함됨:
 - ✓ 산업을 경제 성장의 기둥이자 주요 원동력으로 삼아 산업 발전을 강력히 촉진함
 - ✓ 현대성, 효율성 및 지속 가능성을 향한 산업 개발 사고를 강력하게 혁신함
 - ✓ 산업발전과 도시-서비스 개발을 연계해 '산업생태계'를 조성함
 - ✓ 다른 기업을 선도하고 연결할 수 있는 대기업 유치를 우선시하며, 산업 생산 투자 프로젝트를 선택적으로 승인함(품질, 효율성, 기술 및 환경 보호가 주요 평가 기준임)
- 2030년까지의 목표는 박장성이 현대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적 핵심 지방성이자 지역의 산업 개발 중심지 중 하나가 되는 것임.

(인센티브 지원 정책)

- 산업단지 내 투자 프로젝트는 베트남 정부 규정에 따라 투자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음. 법인세의 경우 기업이 수익을 얻은 첫해부터 최초 2년간 세금 면제, 이 후 다음 4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첨단기술 기업은 첨단기술법의 규정에 따라 투자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음.
- 또한 박장성에 투자하는 기업은 특정 시기에 법률 규정에 따라 기타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으며 토지 정리 보상, 노동력 모집 및 훈련, 투자 및 무역 진흥 정보에 대한 접근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음.

(관련 법률 문서)

- 법인 소득세법 시행지침에 대한 제218/2013/ND-CP 의결서(2013.12.26)
- 투자법 시행지침에 대한 제31/2021/ND-CP(2021.03.26) (투자우대 분야/지역 목록 포함)
- 첨단기술법 제21/2008/QH12호(2009.07.01)
- 수출입세법 시행지침에 대한 제134/2016/ND-CP 의결서(2016.09.01)

외국인 투자현황

▶ 외국인 투자

- 2023년 12월 말까지 박장성 대상 총 외국인 투자는 559개의 프로젝트에 걸쳐, 111억 달러 이상 투자 금액이 등록되어 있음. FDI 투자 유치 측면에서만 박장성은 호치민시, 하이퐁시, 쑹닌성 등에 이어 전국 4위를 차지했음. FDI 프로젝트는 주로 전자 부품, 의류, 물류 등의 제조 및 가공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또한 2023년 12월 말까지 박장성의 산업단지 내 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박장성은 총 등록된 투자액 99.1억 달러에 달하는 373개의 FDI 프로젝트를 포함해 487개의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했음. 2023년에만 64개의 FDI 프로젝트와 9개의 DDI 프로젝트를 포함해 산업단지 내 73개의 신규 프로젝트를 승인되었음.
- 박장성의 산업단지에 투자한 15개의 투자국 중 중국, 한국, 싱가포르, 일본이 주요 투자국임. 특히 성의 산업단지들은 다음과 같은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다수의 대규모 첨단 기술 프로젝트를 유치했음: Foxconn(12개 프로젝트, 총 투자액 23.7억 달러), JA Solar Group(3개 프로젝트, 총 투자액 9.6억 달러), Luxshare(2개 프로젝트, 총 투자액 8.2억 달러), Longi(3개 프로젝트, 총 투자액 5.5달러) 등. 특히, Hana Micron Vina 그룹의 반도체 생산 프로젝트(총 투자액 5.9억 달러)는 베트남 북부 지역에서 최초의 운영되고 있는 반도체 생산 프로젝트임.

▶ 한국 투자

- 2023년 12월 말까지 한국투자는 360개의 프로젝트에 걸쳐, 총 26억 달러가 등록되어 있으며, 한국은 성에 투자한 30개의 국가 중 투자액 기준으로 3위, 투자 건수 기준으로 1위를 차지하였음.
- 박장성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들은 주로 제조·가공 중소기업으로, 삼성, Foxconn 등 대기업에 납품하는 전자 부품을 생산하거나 의류, 전기 장비,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많음.

공단현황

▶ 주요 공단 정보

- 박장성에는 현재 총 면적이 거의 2,700헥타르에 달하는 9개의 산업단지가 있음. 그 중 :
 - ✓ 입주율이 100%인 5개의 산업단지: Dinh Tram 공단(127ha), Quang Chau 공단(516ha), Van Trung 공단(351ha), Song Khe - Noi Hoang 공단(160ha), Tan Hung 공단(105ha).
 - ✓ 부지정리 보상 시행 중인 4개 산업단지: Hoa Phu 공단(85ha 확장), Viet Han 공단(147ha 확장), Yen Lu 공단(377ha), Phuc Son 공단(124ha). 부지정리 보상을 시행하는 총 면적은 약 733헥타르임. 2024년 2분기까지 산업단지의 청정 토지 기금은 약 300헥타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기획투자부가 평가한 후 투자 주장 승인을 받기 위해 총리에게 제출하는 신규 산업단지 프로젝트가 10개 있으며, 2025년까지 총 계획 면적은 약 1,000헥타르에 달함. 따라서 향후 박장성은 산업단지에 대한 조사 및 투자를 위한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항상 산업 토지 자금을 확보할 것임.

투자 유망분야

- 투자 유치 우선 산업: 전자, 반도체 칩, 재생 에너지, 기계, 플라스틱, 플라스틱 제품, 전자/자동차/통신 지원 산업, 제조·가공 등
- 한국 투자 유치 우선 산업: 자동차용 예비 부품 및 액세서리 생산; 전자 장비, 광학 장비, 반도체 칩 제조; 식품 및 농산물 가공; 물류 서비스; 스마트시티 구축; 패션;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 "산업 생태계" 모델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박장성은 다음 기준에 따라 지속 가능한 FDI 유치를 우선시하고 있음:
 - ✓ 오염 없음, 토지와 노동력 최소화, 첨단 기술, 높은 자본 효율성, 높은 경제 효율성
 - ✓ "5대 준비": 용지, 인적 자원, 투자 환경 개선, 투자자에 대한 지원, 효과적인 방역

투자유치기관 정보

기관명	담당	연락처/이메일
투자 진흥 및 기업 개발 센터(박장성 기획투자청 산하)	Mr. Dong Anh Quan 센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l: +84-904 109 996 • Email: donganhquan102@gmail.com • Website: ipcbacgiang.com
박장성 산업단지 관리위원회	Mr. Nguyen Van Phan 투자관리실 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l: +84-255-364-5684 • Email: ban_qlkcn_vt@bacgiang.gov.vn • Website: bqlkcn.bacgiang.gov.vn



2024 베트남 반려동물 보조제 보고서

[클릭시 해당 보고서로 이동합니다.](#)

1. 시장규모
2. 시장트렌드
3. 유통채널
4. 진입장벽
5. 전문가 인터뷰



2024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경제 · 통상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

[클릭시 해당 보고서로 이동합니다.](#)

1. 미국 대선 결과와 시사점
2.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방향 전망
3. 우리 무역 · 투자에 미치는 영향 전망

對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구분 국가명	1988. 1. 1~2024. 10. 20 기준 누계		2024. 1. 1 ~ 10. 20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한국	10,060	87,433.52	330	2,078.93	3,555.35
싱가포르	3,838	81,106.61	377	4,975.12	7,793.85
일본	5,456	77,379.61	218	1,635.69	3,012.84
대만	3,242	40,607.50	155	740.89	2,583.53
홍콩	2,727	37,228.60	289	1,692.66	2,890.21
중국	4,965	29,957.30	789	2,066.98	3,614.29
버진아일랜드(영)	923	23,762.04	13	125.98	462.72
네덜란드	450	14,609.08	18	60.45	164.84
태국	755	14,175.87	26	61.39	141.42
말레이시아	754	12,930.77	35	79.76	139.25
미국	1,409	11,970.72	92	138.71	223.71
기타	6,922	61,101.73	401	1,573.41	3,788.78
전체 합계	41,501	492,263.11	2,743	15,229.96	27,259.22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對베트남 산업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연번	구분 산업	2024. 10. 20 기준 누계		2024. 1. 1 ~ 10. 20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1	제조, 가공	17,671	299,808.07	924	9,785.22	17,065.39
2	부동산 경영	1,196	72,352.93	64	3,236.47	5,226.44
3	전력, 가스, 용수 제조 공급	196	41,674.42	3	1,015.79	1,120.21
4	호텔, 외식서비스	1,005	13,935.83	32	20.42	96.35
5	건설	7,904	11,729.48	969	566.43	999.55
6	도소매, 유지보수	1,845	10,991.14	47	33.45	597.67
7	물류운수	1,173	6,530.76	87	295.83	562.67
8	과학기술, 전문활동	4,750	5,621.10	306	98.86	904.14
9	정보통신	3,090	5,169.83	194	31.13	150.56
10	채광	106	4,889.24	1	0.59	2.81
11	교육, 양성	706	4,638.26	32	26.91	38.44
12	농, 임, 수산	536	3,878.46	9	62.16	91.53
13	예술 오락	149	3,231.79	6	6.95	12.48
14	용수 공급, 폐기물 처리	87	3,049.18	1	0.02	-104.54
15	의료와 사회복지	159	1,766.90	2	2.2	94.97
16	행정, 지원 서비스	666	1,118.12	55	39.43	111.54
17	금융, 은행, 보험	154	934.01	6	4.08	121.41
18	기타 서비스	101	932.54	5	4.02	167.6
19	가구내 고용활동	7	11.07	-	-	-
	합계	41,501	492,263.11	2,743	15,229.96	27,259.22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 US\$억, 증감율%)

구분	2021	2022	2023	2024.10
수출	3,363.10	3,713.00	3,546	3,356.3(+14.9)
수입	3,322.30	3,589.00	3,263	3,122.8(+16.8)
무역수지	40.80	124.00	280.00	233.50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목명	2021	2022	2023	2024.10
각종 전화기 및 부품	57,537.00	57,994.00	52,379.00	46,467(+4.9)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	50,828.00	55,536.00	57,336.00	58,666(+26.1)
기계/플랜트 및 부품	38,344.00	45,751.00	43,128.00	43,048(+21.5)
섬유/직물제품	32,753.00	37,566.00	33,329.00	30,572(+10.5)
신발류	17,751.00	23,895.00	20,237.00	18,574(+12.9)
원목 및 목제품	14,809.00	16,011.00	13,467.00	13,219(+21.2)
철강제품	11,795.00	7,993.00	3,973.00	3,675(+11.0)
수송수단 및 부품	10,616.00	11,988.00	14,157.00	12,516(+5.9)
수산물	8,886.00	10,923.00	8,971.00	8,249(+10.9)
원사(Yarn)	5,612.00	4,713.00	4,355.00	3,653(+0.3)
기타	87,379.00	98,934.00	103,339.00	96,994.00
합계	336,310.00	371,304.00	354,671.00	335,633.00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목명	2021	2022	2023	2024.10
전자제품 및 컴퓨터	75,440.00	81,884.00	87,965.00	88,253(+23.7)
기계/플랜트 및 부품	46,296.00	45,192.00	41,579.00	39,700(+17.0)
각종 전화기 및 부품	21,434.00	21,126.00	8,749.00	8,449(+18.8)
의류(원단)	14,324.00	14,706.00	13,016.00	12,273(+14.7)
플라스틱 원료	11,685.00	12,387.00	9,755.00	9,495(+17.9)
각종 철강	11,523.00	11,920.00	10,425.00	10,477(+23.2)
기타 비금속	8,611.00	9,253.00	7,626.00	7,806(+24.9)
플라스틱 제품	7,959.00	8,119.00	7,508.00	7,194(+16.6)
화학제품	7,627.00	9,144.00	7,605.00	6,319(+1.2)
화학물질	7,735.00	8,747.00	7,726.00	6,927(+9.0)
기타	119,600.00	136,423.00	124,419.00	115,387.00
합계	332,234.00	358,901.00	326,373.00	312,280.00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20	2021	2022	2023	2024.10
1	미국	77,077.00	96,293.00	109,388.00	97,020.00	98,714.00
2	중국	48,905.00	56,009.00	57,702.00	61,207.00	49,936.00
3	한국	19,107.00	21,945.00	24,293.00	23,498.00	21,214.00
4	일본	19,284.00	20,128.00	24,232.00	23,314.00	20,241.00
5	홍콩	10,437.00	11,996.00	10,936.00	9,631.00	10,276.00
6	네덜란드	6,999.00	7,686.00	10,430.00	10,241.00	10,667.00
7	독일	6,644.00	7,286.00	8,968.00	7,400.00	6,533.00
8	인도	5,235.00	6,259.00	7,961.00	8,498.00	7,764.00
9	태국	4,917.00	6,161.00	7,476.00	7,192.00	6,501.00
10	영국	4,955.00	5,765.00	6,065.00	6,345.00	6,356.00
	기타	79,094.00	96,782.00	103,853.00	100,325.00	97,431.00
	합계	282,654.00	336,310.00	371,304.00	354,671.00	335,633.00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20	2021	2022	2023	2024.10
1	중국	84,187.00	109,874.00	117,866.00	110,644.00	117,519.00
2	한국	46,895.00	56,155.00	62,088.00	52,511.00	46,314.00
3	대만	16,701.00	20,772.00	22,631.00	18,421.00	18,666.00
4	일본	20,341.00	22,648.00	23,373.00	21,638.00	17,860.00
5	미국	13,713.00	15,270.00	14,470.00	13,822.00	12,236.00
6	태국	10,968.00	12,564.00	14,092.00	11,797.00	10,094.00
7	오스트레일리아	4,677.00	7,946.00	10,144.00	8,533.00	6,414.00
8	말레이시아	6,575.00	8,148.00	9,124.00	7,809.00	7,570.00
9	인도네시아	5,382.00	7,587.00	9,641.00	8,728.00	8,439.00
10	인도	4,435.00	6,950.00	7,086.00	5,864.00	4,790.00
	기타	48,826.00	64,320.00	68,386.00	66,606.00	62,378.00
	합계	262,700.00	332,234.00	358,901.00	326,373.00	312,280.00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한-베트남 교역동향

(단위 : US\$백만, 증감율%)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10
수출	48,510(+0.7)	56,729(+16.9)	60,972(+7.5)	53,479(-12.3)	48,256(+9.8)
수입	20,579(-2.3)	23,965(+16.5)	26,726(+11.5)	25,941(-2.9)	23,665(+8.3)
무역수지	27,931	32,763	34,246	27,550	24,591

자료원: KITA

한국의 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목명	2020	2021	2022	2023	2024.10
반도체	11,501(7.2)	14,026(22)	16,240(15.8)	12,729(-21.6)	14,708(+46.8)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9,552(19.9)	12,050(26.1)	12,527(4.0)	12,350(-1.4)	9,419(-7.5)
석유제품	1,196(-45.5)	1,157(-3.2)	3,733(222.3)	3,327(-10.8)	2,283(-23.0)
무선통신기기	3,460(18)	3,315(-4.2)	2,358(-29.2)	2,166(-8.1)	2,102(+16.4)
합성수지	1,615(-0.6)	2,415(49.5)	2,581(6.9)	2,001(-22.5)	1,965(+18.8)
기구 부품	2,241(0.5)	2,405(7.3)	2,194(-8.8)	1,861(-15.1)	1,502(-3.2)
플라스틱 제품	1,115(-7.8)	1,174(5.3)	1,067(-9.2)	1,021(-4.2)	887(+4.5)
철강판	1,052(-9.1)	1,267(20.4)	1,069(-15.6)	887(-17.0)	781(+5.3)
기타기계류	669(-14.5)	957(43.0)	793(-17.1)	801(+1.0)	570(-17.5)
계측제어분석기	686(-18.6)	717(4.5)	815(13.6)	734(-9.9)	480(-26.5)
기타	15,437	17,039	17,242	15,612	13,559
합계	48,511(0.7)	56,729(16.9)	60,972(7.5)	53,489(-12.3)	48,256(+9.8)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한국의 베트남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목명	2020	2021	2022	2023	2024.10
무선통신기기	4,980(-12.5)	5,579(12)	5,986(7.3)	4,543(-24.1)	3,971(+3.0)
의류	3,145(-13.7)	3,393(7.9)	3,840(13.2)	3,542(-7.7)	3,159(+0.2)
컴퓨터	1,270(87.1)	1,659(30.6)	1,948(19.1)	2,075(+6.6)	1,956(+10.6)
반도체	561(18.9)	750(33.8)	787(5.0)	2,053(+160.9)	2,350(+45.1)
산업용 전기기기	574(20)	725(26.2)	970(33.8)	1,396(+44.0)	1,404(+21.9)
신변잡화	1,029(-2.2)	984(-4.4)	1,250(27.2)	1,252(+0.1)	1,020(-1.0)
목재류	632(-3.9)	755(19.5)	942(24.8)	722(-23.3)	557(-9.6)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1,027(-14.2)	876(-14.7)	783(-10.5)	657(-15.9)	484(-17.3)
기구부품	481(-5.9)	624(29.6)	654(4.8)	571(-12.7)	535(+13.7)
영상기기	391(11.8)	426(8.9)	441(3.6)	409(-7.2)	347(0.7)
기타	6,474	8,161	9,103	8,718	7,882
합계	20,579(-2.3)	23,966(16.5)	26,726(11.5)	25,938(-2.9)	23,665(+8.3)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 한/베 통계 집계 기준이 달라, 수치가 다소 차이남

< 2023~2024년 주요 경제지표 >

구분	시기	단위	국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GDP증가율	2023년(연간)	%	6.72	5.05	2.9	3.8	1.9	5.6	
	2024년 2Q	%	5.66	5.05	3	5.8	2.2	6.4	
	2024년 3Q	%	6.93	4.95	5.4	5.3	3	5.2	
생산	산업생산 (증가율 또는 지수)	2023년(연간)	-	1.5	N/A	125.9	127.3	97.5	N/A
		2024년 8월	-	9.5	N/A	130.4	134.5	95.2	2.3
		2024년 9월	-	10.8	N/A	137.4	133.6	92.4	4.7
	구매관리자지수 (PMI)	2023년(연간)	-	N/A	N/A	N/A	47.7	51.8	51.5
		2024년 8월	-	52.4	48.9	50.9	49.7	52	51.2
		2024년 9월	-	47.3	49.2	51	49.5	50.4	53.7
소비	소비자동향지수	2023년(연간)	-	N/A	N/A	113.6	N/A	56.7	N/A
		2024년 8월	-	N/A	124.4	114.3	N/A	56.5	N/A
		2024년 9월	-	N/A	123.5	117.1	N/A	55.3	N/A
	소매판매	2023년(연간)	-	9.6	N/A	N/A	N/A	4.78	4.5
		2024년 8월	-	7.9	5.8	N/A	N/A	N/A	1.4
		2024년 9월	-	7.6	4.8	N/A	N/A	N/A	1.2
	소비자물가 (증가율 또는 지수)	2023년(연간)	%	3.25	N/A	4.8	N/A	N/A	7.9
		2024년 8월	%	3.45	2.12	2.2	1.9	N/A	3.3
		2024년 9월	%	2.63	1.84	2	1.8	N/A	1.9
투자	고정자산투자	2023년(연간)	%	N/A	N/A	N/A	10.9	N/A	N/A
		2024년 8월	%	N/A	N/A	N/A	N/A	N/A	N/A
		2024년 9월	%	N/A	N/A	N/A	N/A	N/A	N/A
고용	실업률	2023년(연간)	%	2.28	N/A	1.9*	3.4	1	3.1
		2024년 2Q	%	2.29	N/A	2.1	3.3	1.1	3.7
		2024년 3Q	%	2.24	N/A	1.9	3.2	1	4.1
무역	수출증가율	2023년(연간)	%	△4.4	△11.3	△10.1	△8.0	△1.0	△3.4
		2024년 8월	%	14.5	7.13	4.4	12.1	7	0.3
		2024년 9월	%	10.7	6.44	0.1	△0.3	1.1	△7.6
	수입증가율	2023년(연간)	%	△8.9	△6.6	△13.4	△6.4	△3.8	4.1
		2024년 8월	%	12.4	9.46	1.8	26.2	8.9	2.7
		2024년 9월	%	11.1	8.55	0.9	10.9	9.9	9.9

[자료원]

- (베트남) 베트남 통계청, 월드뱅크(싱가포르) 싱가포르 통계청(DOS), The Straits Times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CEIC, Moody's, Trading economics, 인도네시아 통계청, Global Trade Atlas 등
 - (싱가포르) 싱가포르 통계청(DOS), The Straits Times
 - (말레이시아) Central Bank of Malaysia, 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 MIER, S&P
 - (태국) 산업경제실(OIE), 태국중앙은행(BOT), 태국상공회의소대학교(UTCC), 태국상무부(MOC), 태국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
 - (필리핀) Trading Economics, YoY, Investing.com, IHS Markit, PSA, Moody's Analytics, Unemployment rate
- 전망치는 *표시

2025 베트남 하노이 국제무역전시회 (VIETNAM EXPO)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안내

KOTRA와 인천테크노파크는 2025년 4월 2일 ~ 4월 5일 (4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2025 베트남 하노이 국제 무역전시회(VIETNAM EXPO)’ 한국관 참가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전시회명	2025 베트남 하노이 국제 무역전시회 (VIETNAM EXPO)
개최기간	2025. 4. 2.(수) ~ 4. 5.(토) (4일간)
개최장소	Hanoi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ICE)
전시품목	미용화장, 패션잡화, 식품음료, 소재장비 등 종합품목
주최사명	베트남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베트남무역진흥공사(Vietnam Trade Promotion Agency ; VIETRADE)
개최주기	매년
홈페이지	http://vietnamexpo.com.vn/en
참가신청	<p>*세부사항 확인 : 상세 : 사이트관리 글로벌 전시 플랫폼 (gep.or.kr)</p> <p>*신청기간 : 2024. 11. 18.(월) ~ 12. 6.(금) 18:00까지</p> <p>o 신청방법 : 아래 4가지 신청을 모두 완료해야 최종 신청 완료로 간주</p> <p>① 온라인 신청</p> <p>② 필수제출 서류 (신청시 파일 첨부)</p> <p>③ buyKOREA 온라인 상품정보 등록/갱신 (‘24년도 참가기업의 경우 사업신청일 기준 최신 상품 정보로 신규 등록/혹은 갱신 필수)</p> <p>④ 참가 신청금 납부</p>

베트남 수출기업 진출전략 세미나

1. 행사개요

구분	내용	비고
일시	'24.12.4.(수) 16:00~17:50	
장소	ZOOM 온라인 설명회	
참석대상	베트남 수출 희망기업	

2. 프로그램

시간 (베트남 기준)		내용	비고
16:00 - 16:10 (14:00 - 14:10)	10'	설명회 안내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지수정 주무관
16:10 - 16:40 (14:10 - 14:40)	30'	- 베트남 수출 시 주요 인증 및 규제 - FTA 활용 관련 애로사례	KOTRA 하노이 무역관 FTA해외활용지원센터 정영균 관세사
16:40 - 17:10 (14:40 - 15:10)	30'	- 한-베 FTA 활용 가이드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지수정 주무관
17:10 - 17:40 (15:10 - 15:40)	30'	- 베트남 물류 및 설비 통관실무 - 베트남 수입정산보고서 작성 유의사항	포맨해운항공 서원재 법인장 포엠파트너스 판창현 관세사
17:40 - 17:50 (15:40 - 15:50)	10'	질의응답	

참가신청링크 (참석자 1인 1신청서 작성)



네이버 폼
(국내용)

문의처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TEL : (+82) 02-510-1382>
지수정 주무관(seoulpport@korea.kr)



구글 폼
(국외용)

문의처: KOTRA 하노이 FTA 활용지원센터
<TEL : (+84) 024-3946-0511(620 ~ 621)>
정영균 관세사 (wjddudrbs93@kotra.or.kr)
최지영 대리 (jiyoungchoi@kotra.or.kr)

kotra 베트남 NEWS



베트남 · 인도네시아 · 인도
비즈니스 협력센터

PARTNERSHIP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편집 및 제작 : 베트남비즈니스협력센터 / 협업 : 코트라하노이, 호치민, 다낭 무역관
☎ +84 24-3946-0511 ✉ soorin@kotra.or.kr < 저작권자 ©KOTRA >